

서로 다른 형태가 사용되었으므로 적절하다. ③ '아니'는 부사로, 현대 국어와 마찬가지로 부사가 그 자체로 부사어로 사용되었으므로 적절하다. ⑤ '부텃'은 '부텃'에 관형격 조사 '시'이 결합한 것으로, 현대 국어와 달리 높임의 대상이 되는 유정 체언과 결합할 때는 관형격 조사 '시'이 사용되었으므로 적절하다.

13. [출제의도] 관형어와 부사어 이해하기

'노력한'은 의존 명사 '만큼'을 수식하는 관형어이고, '취미로'는 서술어 '삼았다'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부사어이기 때문에 생략할 수 없으므로 각각 ㉠, ㉡에 해당하는 예이다.

- ① '회장으로'는 서술어 '주재하였다'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부사어가 아니므로 ㉡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그'는 의존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어가 아니므로 ㉡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마당에서'는 서술어 '뛰는다'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부사어가 아니므로 ㉡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나라의'는 의존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어가 아니므로 ㉡에 해당하지 않는다.

14. [출제의도] 구개음화 현상 파악하기

④ '끝인사'의 '인사'는 실질 형태소이다. ⑤ '끝이'의 '-이'는 형식 형태소이므로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나 [고지]로 발음된다. ⑥ '끝이'의 '이'는 실질 형태소이므로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 [고디어]로 발음된다.

15. [출제의도] 피동 표현 파악하기

'그려졌다'는 '그리-'에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지다'만 결합한 형태로 이중 피동 표현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① '급했다'는 '급-'에 피동 접사 '-히-'가 결합했으므로 적절하다.
- ② '빠았었다'는 '빠았-'에 피동 접사 '-기-'가 결합하여 주어진 '형이' '동생'에게 '인형을 빼앗기는' 상황을 나타내는 피동 표현이므로 적절하다.
- ③ '세워졌다'는 '세우-'에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지다'가 결합하여 장형 피동으로 실현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⑤ '나뉘었다'는 '나누-'에 피동 접사 '-이-'가 결합하여 '나누-'로 줄어든 형태의 피동 표현이므로 적절하다.

[인문]

[16 ~ 21] <출전> 김필수 외, 『관자』
전세영, 『율곡의 군주론』

16. [출제의도] 서술 방식 파악하기

(가)는 1 ~ 3문단을 통해 관중이 주장하는 군주의 통치술에 담긴 내용을 중심으로 4문단에서 '백성들의 경제적 안정을 기반으로 부강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 법을 통한 통치를 도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는 의의를 밝히고 있고, (나)는 1 ~ 3문단을 통해 율곡이 주장하는 군주의 통치술에 담긴 내용을 중심으로 4문단에서 '왕도정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백성의 현실적 삶에 주목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라는 의의를 밝히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17. [출제의도] 핵심 개념 이해하기

(가)의 3문단에서 관중은 '군주가 자신에 대해서는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패라고 규정하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군주도 법의 적용에서 예외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군주는 '권세'를 지녀야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데, 이때 군주가 패를 실천해야 백성이 권세를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18. [출제의도] 사실정보 파악하기

(나)의 4문단에서 율곡은 '백성의 도덕적 교화를 이

루는 왕도정치를 위해서는 백성들의 삶이 경제적으로 편안한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율곡의 입장에서 백성의 삶이 경제적으로 편안해야 도덕적 교화가 이루어진다고 볼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① (나)의 1문단에서 율곡은 '개인의 수양을 통해 알을 늘리고 인격을 완성하는 것을 군주의 자격으로 보았고, '군주가 인격을 완성하고 아는 것을 실천하면 백성의 선한 본성을 회복하는 도덕적 교화가 가능'하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율곡의 입장에서는 군주는 알을 늘리는 것뿐 아니라 알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것이므로 적절하다.
- ② (나)의 1문단에서 율곡은 '만약 군주가 포악한 정치를 펼쳐 신하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거나 민심을 잃으면 교체될 수 있다고 여겼'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율곡의 입장에서는 군주가 포악한 정치를 펼쳐 신하들에게 지지를 얻지 못하면 교체될 수 있다고 볼 것이므로 적절하다.
- ③ (나)의 4문단에서 율곡은 '왕도정치를 위해서는 백성들의 삶이 경제적으로 편안한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았'는데, 이는 '군주의 존재 근거가 백성이라고 보는 민본관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율곡의 입장에서는 왕도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존재 근거를 백성으로 보아야 한다고 볼 것이므로 적절하다.
- ⑤ (나)의 4문단에서 율곡은 '조세 부담을 줄이는 등 백성의 경제적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함을 역설'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19. [출제의도] 주어진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하기

[A]에서 언급된 '신하를 능력에 맞게 발탁하여 일을 분배'하는 것은 '치세를 만드는' 방법임을 알 수 있고, (가)의 4문단을 통해 군주는 '패업을 위한 통치'의 방법으로 '능력 있는 신하를 공경하게 동용'함을 제시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의 관점에서는 패업을 위한 통치의 방법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20. [출제의도] 다른 관점과 비교하여 적용하기

(나)의 2문단에서 율곡은 '군주의 통치에 따라 태평한 시대인 치세와 혼란스러운 시대인 난세가 구분'되는데 '이들의 통치 방법은 왕도와 패도'이고 '왕도는 군주의 인격 완성을 통해 백성의 도덕적 교화까지 이루어 내는 것이고, 패도는 군주의 인격이 완성되지 않아 ~ 이루어내는 것'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율곡은 군주의 인격 완성 여부에 따라 치세와 난세가 구분된다고 보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① <보기>의 ㉡에서 '권력을 얻은 후에는 법을 통해 통치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한 것에서 법을 통한 통치의 중요성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고, (가)의 4문단에서 관중은 '법을 통한 통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라고 한 것에서 법을 통한 통치의 중요성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② <보기>의 ㉢에서 '법을 통해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은 군주만이 갖고 있어야 권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한 것에서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군주에게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고, (가)의 3 ~ 4문단에서 관중은 '군주는 '권세'를 지녀야 국가를 다스릴 수 있다'고 보고 '신하들이 군주의 권세를 넘보거나 법질서를 혼란스럽게 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권세를 신하에게 위임하지 말아야' 한다고 한 것에서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인 권세가 군주에게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③ <보기>의 ㉣에서 '군주는 도덕성의 회복을 목적으로 백성의 기본적인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인간다운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라고 한 것에서 백성의 경제적 안정의 목적이 도덕성 회복임을 알 수 있고, (가)의 2문단에서 관중은 '백성의 운택한 삶은 도덕적 교화와 같은 목적을 위한 것이'라

고, (가)의 2문단에서 관중은 '백성의 운택한 삶은 도덕적 교화와 같은 목적을 위한 것이'라

21. [출제의도]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하기

㉡의 '규정'은 '내용이나 성격, 의미 따위를 밝혀 정함'의 의미이고, '바로잡아 고침'은 '수정의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현대시]

[22 ~ 24] <출전> 김광섭, 『봄』
허형만, 『겨울 들판을 거닐며』

22. [출제의도] 시의 표현상 특징 파악하기

(가)의 2연의 '겨울 짐을 부릴 때도 되고'와 '울타리를 헐 때도 된다'에서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고, (나)의 2행 ~ 3행의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보이는'과 '아무것도 피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19행 ~ 20행의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을 거라고'와 '아무것도 키울 수 없을 거라고'에서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23. [출제의도] 시어의 의미와 기능 이해하기

㉠에는 '노란 빛'으로 꽃이 핀 상태가 드러나, ㉡에는 '초록빛'의 '성성한' 모습이 드러나 생명성을 환기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24.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 감상하기

(나)에서 13행의 '흙의 무게가 삶의 무게만큼 험거웠지만'에 희망의 이미지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① (가)에서 2연의 '멀리 간 것이 다 돌아온다'에 봄은 생명기 소생하는 계절이라는 인식이 나타나고, (나)에서 5행 ~ 6행의 '매운 바람도' '맛을 만치 맞으면' '오허러 더욱 따사로움을 알았다'에 계절에 내재된 소생의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② (가)에서 4연 ~ 5연의 '꽃은 짧은 가을 해에' '어디쯤 갔다가'와 '길어지는 봄 해를 따라' '뭇 천리나 와서' '찬란한 꽃밭을 이루는가'에 가을에서 봄으로의 계절의 순환이 나타나고, (나)에서 7행 ~ 8행의 '털 녹은 눈발이' '땅의 품안으로 녹아들기를 꿈꾸며 뒤척이고'에 겨울에서 봄으로의 계절의 순환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④ (가)에서 3연의 '버들강아지는 버들가지로'와 '사람은 사람에게로'를 연결하여 계절의 변화로 인한 자연현상을 인간의 삶과 관련짓고 있고, (나)에서 17행의 '겨울 들판이나 사람이나'에서 '겨울 들판'과 '사람'을 연결하여 자연현상을 인간의 삶과 관련짓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⑤ (가)에서 3연의 '죽은 것과 산 것이' '상천례를 이룬다'는 것에 화자가 지향하는 화합의 가치가 드러나고 있고, (나)에서 18행과 21행의 '가까이 다가서지도 않으면서' '함부로 말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에 화자가 지향하는 태도가 드러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과학]

[25 ~ 29] <출전> 박정일, 「추상적 사유의 위대한 힘」

25. [출제의도] 중심 내용 파악하기

보편 튜링 기계가 처리하지 못하는 알고리즘의 종류가 무엇인지는 읽글을 통해 알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1문단의 '수학적 힐베르트는 ~고안하게 된다.'를 보면 튜링 기계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3문단의 '작동규칙은 예를 들면 (A, 1, P0, R, B)와 같이 표시할 수 있으며'를 보면 튜링 기계의 작동규칙을 표시하는 형식이 무엇인지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5문단의 '나아가 테이프 한 칸에 ~분해해서 수행하는 것이다.'를 보면 보편 튜링 기계와 현대 컴퓨터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3문단의 '튜링 기계는 작동규칙이 ~ 반복한 기호에 따라 작동되는데'와 4문단의 '튜링 기계는 테이프의 시작 모습 ~이에 따라 작동하게 된다.'를 보면 튜링 기계가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26. [출제의도] 세부 내용 추론하기

2문단의 '튜링 기계는 ~가상의 기계로'와 '테이프는 좌우 양방향으로 ~ 갖고 있다고 가정하며'를 보면, ㉠의 길이를 무한으로 가정할 것을 통해 튜링 기계가 현실에 존재하는 장치라 아닌 가상의 장치라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27. [출제의도] 사화에 적용하여 이해하기

㉢와 ㉣는 튜링 기계의 헤드가 기록할 기호가 각각 '1'과 '□'로 다르게 지정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① ㉤는 튜링 기계의 현재 상태와 다음 상태가 모두 'X'로 동일하게 지정되어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는 튜링 기계의 헤드가 읽는 기호와 기록할 기호가 각각 '1'과 '□'로 다르게 지정되어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와 ㉧는 튜링 기계의 헤드가 읽는 기호가 각각 '1'과 '□'로 다르게 지정되어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와 ㉩는 튜링 기계의 헤드가 이동할 방향이 각각 'R'과 'L'로 다르게 지정되어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28. [출제의도] 자료를 바탕으로 이해하기

㉑에서 튜링 기계의 상태가 Z일 때, ㉒에 따라 헤드는 테이프에 기록된 1을 지우고 기계의 상태는 현재 상태인 Z가 유지하게 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㉓에서 튜링 기계의 상태가 X일 때, ㉔에 따라 헤드는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하고 기계의 상태는 현재 상태인 X가 유지하게 되므로 적절하다. ② ㉕에서 튜링 기계의 상태가 X일 때, ㉖에 따라 헤드는 빈 칸에 1을 기록하고 기계의 상태는 다음 상태인 Y로 바뀌게 되므로 적절하다. ③ ㉗에서 튜링 기계의 상태가 Y일 때, ㉘에 따라 헤드는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하고 기계의 상태는 현재 상태인 Y가 유지하게 되므로 적절하다. ④ ㉙에서 튜링 기계의 상태가 Y일 때, ㉚에 따라 헤드는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하고 기계의 상태는 다음 상태인 Z로 바뀌게 되므로 적절하다.

29. [출제의도] 어휘의 의미 파악하기

㉜의 '분해하다'는 '어려 부분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것을 그 낱말로 나누다.'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이다. 따라서 '분해해서'를 '파뜨서서'로 바꾸어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고안하다'는 '연구하여 새로운 안을 생각해 내다.'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이다. 따라서 '고안하게'를 '생각해 내게'로 바꾸어 쓰는 것은 적절하다. ② '구성되다'는 '몇 가지 부분이나 요소들이 모여 일정한 전체가 짜여 이루어지다.'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이다. 따

라서 '구성된다'를 '이루어진다'로 바꾸어 쓰는 것은 적절하다. ③ '조합하다'는 '여럿을 한데 모아 한 덩어리로 짜다.'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이다. 따라서 '조합하느냐'를 '짜느냐'로 바꾸어 쓰는 것은 적절하다. ⑤ '공헌하다'는 '힘을 써 이바지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이다. 따라서 '공헌한'을 '이바지한'으로 바꾸어 쓰는 것은 적절하다.

[현대소설]

[30 ~ 33] <출전> 송기숙, 「몽기미 풍경」

30.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A]의 '크고 작은 ~꽃했던 풍경이었다'에서 감각적인 묘사를 사용하여 관찰 대상을 실감 나게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1. [출제의도] 소재의 의미 파악하기

'모두가 꿈에도 ~나타난 적이 없었다'와 '도시의 모든 ~해에는 것만 같았다.'에서 ㉠은 인물이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체험하게 하는 소재임을, '남편이 ~어째서 ~그 생각뿐이었다'에서 ㉡는 인물이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현실을 인식하는 공간임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32. [출제의도] 인물의 심리 파악하기

㉢에서 남편이 '아쌀스럽게 히들거리며' 말하고 있을 뿐 순자의 마음이 상할 것을 걱정하여 조심스러워하는 태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에서 남편은 '일 년 수입이 ~내 한 달 벌어도 못' 된다고 고향의 상황과 비교하여 '은근히 자기 자랑을 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에서 순자는 남편의 말을 들으며 '어리둥절'해 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에서 남편은 '웃물이 도는 ~거슴츠레하게' 뜨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에서 남편은 '조급도 스스럼이 없'이 말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3.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 감상하기

'본전도 못 건지'며 '가슴을 조이는' 사람들이 '날이면 날마다 그 심을 들락거렸다'는 것은 '투기를 한 사람들이' 심을 들락거리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서울로 올라와 '빠다마'가 지미는 고통'을 느끼며 '살벌한 현실'을 살고 있는 순자의 모습에서, 고된 노동의 현실을 짐작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순자가 '누구 하나 돌봐주는 사람' 없이 생활하는 자신을 '무너리'와 동일시하는 모습에서, 도시 생활에서 느끼는 소외감을 짐작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순자가 '몽기미 집집마다 ~가슴을 후볐다'는 것에서, 경제적 발전에서 낙후된 어촌 마을의 현실을 짐작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남편이 '식순이 공순이 ~물도 돈이'라고 하며 '십만 원 넘게 ~급사 턴이나' 된다는 본새'인 것에서 물질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세태를 짐작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고전시가 · 현대수필]

[34 ~ 37] <출전> 윤이후, 「일민가」

이효석, 「화춘의장」

34. [출제의도] 작품 간 공통점 파악하기

(가)의 '금서일일이 이 아니 내 분인가'와 '호탕한 미친 흥을 행어 아니 남이 알겠는가'에 설의적 표현이 활용되어 의미를 강조하고 있고, (나)의 '빈틈없는 이론으로 든든히 무장을 해보다 하더라도 행동이 없는 이상 갑혹백을 어떻게 가만단 말인가.'에 설의적 표현이 활용되어 의미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적절

하다.

35.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 이해하기

㉠의 '용은 허리가 휘고 기력이 부실하나 서두르는 법 없이 지치는 법 없이 말하는 법 없이 날이 맞도록 묵묵히 일하며'에 글쓴이가 대상을 관찰한 내용이 드러나 있을 뿐 대상에 대해 의혹을 갖는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고, '그의 장기가 미치는 뒷자취는 날이 면목이 새롭고 아름다워진다'에 대상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어 가는 데 대한 글쓴이의 인식이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의 '가구에서는 좀체 얻어 볼 수 없는 귀한 경물'에 글쓴이가 풍경의 가치를 인식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으며, '아침저녁으로 손쉽게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나는 자신을 행복스럽게 여긴다'에 이를 수시로 감상할 수 있는 데 따른 글쓴이의 심정이 드러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의 '아이같이 방금 웃어 보이는 동심의 표정을 읽는' 것에 글쓴이가 대상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내용이 나타나 있고, '그는 괴롭게 노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와 '친진하게 장난하고 예술하고 있는 것이라고 번역된다'에 주의 깊게 살펴본 대상의 면모를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글쓴이의 인식이 드러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의 '희망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 어느 정도 어느 거리의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에 희망의 의미를 구체화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답답'함을 느끼는 글쓴이의 심정이 드러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의 '할 바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길이 없는 것이다.'에 '좀체 구하기 어려운 저미의 근원이 있기는 있다고 하는 것에 자신이 현재 상태에 이르게 된 데 있어 '길이 없는 것'을 근본적 원인이라고 여기는 글쓴이의 판단이 드러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36. [출제의도] 소재의 기능 파악하기

(가)의 '달'은 '수조기를 길어 들고' 있던 화자가 '모래 독을 돌아돌아 석경으로 올라'간다는 점에서 화자의 행동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적 배경을 나타내는 소재이고, (나)의 '아침'은 글쓴이가 관찰한 대상인 '육십 용'이 '하루도 번기는 날이 없이' '보에 쟁기를 써가지고 어디선지 타'라는 일관된 행동이 나타나는 공간이므로 적절하다.

37.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 감상하기

(나)에서 생활이 '소침됨을 깨닫는다'는 것과 '생활의 욕이 급격히 저락되었다'고 하는 것에는 무기력한 삶이라는 글쓴이가 해결하고 싶어 하는 고민이 나타나 있다. 하지만 (가)에서 '금서일일'을 '내 본'으로 여기는 것에는 소박한 삶에 만족하며 사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을 뿐, 화자가 속세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고민이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가)에서 '앞내에 고기 낚고 뒷뵈에 약을 캐'며 '인생지략'을 느끼는 것에 자연에서의 삶 속에서 위안을 얻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나)에서 '육십 용'의 생활을 '근로와 예술을 동시에 가진 생활'이라고 하며 '육십 용에게서 '노동의 참된 경지'를 본다는 것에 가치 있는 삶의 모습에 대해 깨달음을 얻고 있는 글쓴이의 모습이 나타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가)에서 '내 근심 무익한 줄 모르지' 않지만 '천성을 못 변'해 '가소롭다'는 것에 번민을 떨치지 못하는 자신을 성찰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고, (나)에서 '육십 용의 여전한 생활의식에 비겨' 자신의 생활을 '부끄러워' 한 것에 타인과 대조하며 자신을 성찰하는 글쓴이의 모습이 나타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가)에서 '강호의 일민이 되어' 속성수나 하리라'에 은거하고 있으면서도 세상을 향한 마음을 드러내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고, (나)에서 '허구한 날 상을 췌뿌리고만 지

낼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하며 '행의 생활'로 '애써 솟아올라야 할 것'이라고 다짐하는 것에 무기력한 삶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는 글쓴이의 모습이 나타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사회]

[38 ~ 41] <출전> 이준규, 「미시경제학」

38.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하기

1문단에서 '플랫폼 사업자인 신용 카드 회사 입장에서는 ~ 가맹점들 모두가 고객이 된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1문단에서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신용 카드 회사가 ~ 카드 결제 시스템을 들 수 있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3문단에서 가격구조는 '양쪽 이용자 집단 모두를 플랫폼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한쪽 이용자 집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1문단에서 '플랫폼이란 양쪽 이용자 집단의 ~ 제도적 환경을 일컫는다'고 하였고, 플랫폼 이용자들은 '플랫폼을 통해 상대 집단과 ~ 편익을 창출'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⑤ 6문단에서 프리미엄 전략은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한 이용자의 ~ 유료 이용자로 전환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39. [출제의도]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내용 추론하기

3문단에서 가격구조는 '플랫폼 이용료를 각각의 ~ 어떻게 부과하느냐를 의미한다'고 하였고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 이용료를 통해 ~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40.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보기>에서 P사는 '이모티콘 사용에 익숙해진 이용자들을 많이 확보'했다고 하였고, 1문단에서 '이용자 집단은 플랫폼을 통해 ~ 상대 집단과 거래하게 된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보기>에서 P사는 '더 많은 메신저 이용자들을 확보하기 위해 ~ 무료 이모티콘을 배포'했다고 하였고, 6문단에서 '공짜 미끼 전략은 ~ 플랫폼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보기>에서 P사는 광고주들에게 '광고 비용'을, 이모티콘 공급 업체에게 '판매 수수료'를 부과했다고 하였고, 3문단에서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 이용자를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보기>에서 P사는 '모든 광고주들에게 원래보다 높은 광고 비용을 부과'했다고 하였고, 4문단에서 '카드 회원 수가 늘어나면 ~ 카드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⑤ <보기>에서 P사의 메신저 프로그램은 '메신저 이용자들끼리 서로 편하게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하였고, 2문단에서 '직접 네트워크 외부성이란 ~ 개별 이용자의 효용이 증가하는 특성이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41. [출제의도]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내용 추론하기

5문단에서 '카드 회원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은 경우에는 ~ 카드 회원 수가 크게 감소'한다고 하였고, 2문단에서 '한쪽 이용자 집단의 규모가 작아지면 ~ 효용이 감소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4문단에서 '카드 회원들이 가맹점에 미치는 ~ 낮은 연회비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였다는 것을 보면, ㉠의 수는 감소하고, ㉡의 효용은 크게 감소할 것이며, P사가 ㉢에 부과하는 판매 수수료는 하락할 것이므로 적절하다.

[고전소설]

[42 ~ 45] <출전> 작자 미상, 「화산기봉」

42.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 이해하기

혜랑이 '이성과 화양 공주가 화목하지 않음'을 알아 채고 장씨에게 '이러한 기회는 ~ 오지 않습니다.'라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43. [출제의도] 서술상 특징 파악하기

'혜랑이 비록 ~ 어찌 속일 수 있겠는가?'와 '효성스러운 거동이 ~ 사라지게 할 정도였다'에서 서술자가 개입하여 사건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4. [출제의도] 공간의 기능 파악하기

이영준이 이성을 '외당'으로 불러서 '어디에 있었는지' 묻고 이성이 '정당에 있었다'고 대답할 뿐, '외당'에서 두 사람이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 의견 차이를 드러내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이성이 '방'으로 가서 화양이 '방자함'을 보이지 않고 '잘난 척하는 마음'이 드러나지 않는 것을 보고 '정이 점점 솟아'났으므로 적절하다. ② 신광 법사가 '혜랑의 가르침'을 들은 후 '명월루'로 이동했으므로 적절하다. ③ 신광 법사가 '화양 공주의 방'에서 '화양을 찌르려고' 하다가 '방 밖에 시비들의 소리' 때문에 '엇걸에 비껴' 뺐었으므로 적절하다. ⑤ 이영준이 장씨를 '후원 냉옥'에 가두고 '개과천선하기를 기다'렸으므로 적절하다.

45. [출제의도] 의적 준거에 따라 작품 감상하기

화양이 '어찌 분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하는 정 상궁에게 '서방님'이 '나를 박대함이 없고 ~ 예로 대한다'고 말한 것에서 가족 내 갈등이 유발된 책임을 가족 외 인물에게 돌리고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장씨가 '이성이 왕실의 한 사람이 ~ 신광 법사에게 의논'하고 '비밀스럽게 계교를 행하였다'는 것에서 주인공의 혼인으로 인해 계모와 주인공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장씨와 혜랑이 '화양을 해칠 계교'를 짜고 화양이 당한 일의 '누명이 이성에게 ~ 면할 수 있겠는가'라고 한 것에서 계모가 일으킨 사건이 가문의 존속을 위협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이성이 '신이'한 '침범'으로 '두 눈이 ~ 전혀 없이 보였'던 화양을 깨어나게 한 것에서 주인공이 비범한 능력을 통해 급박한 상황에 대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이무와 이성이 '함께 나아가 울며' 이영준에게 '어머니의 망극한 죄를 ~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에서 효라는 유교적 윤리를 바탕으로 악행을 저지른 가족 내 인물을 포용하려는 모습을 엿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